

[제43회 대한민국연극제 본선 경연 심사총평]

안녕하십니까. 이선형입니다.

“연극, 인천에 상륙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제43회 대한민국연극제 인천이 연극인 여러분의 열정과 관객 여러분의 열렬한 호응 속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폭서와 폭우 속에서도 축제의 열기를 북돋아 준 전국의 연극인들, 관객들 그리고 인천 시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대한민국연극제는 연출과 희곡 선정에서 장벽을 없애고, 심사위원 구성에 국제성을 더하여 연극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연극은 그 특성상 지역 간 편차가 큰 예술입니다. 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연극제에 참가하여 혼신의 열연을 펼친 모든 연극인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고, 각자의 고유성을 살리면서도 깊이 있고 참신한 연극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여러분은 구태의연에서 벗어난 신선한 연극, 치열하게 고민하고 독창적으로 해석한 연극, 충격을 가하는 연극, 우리 삶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연극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연극제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극제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연극제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극을 더욱 갈고 닦아야 합니다. 아울러 새롭고 혁신적이고 파격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연극을 고민해야 합니다. 안정적이고 무난한 연극, 모험을 도외시하는 연극은 죽은 연극입니다.

세레게티의 누우떼는 죽음을 각오하고 기꺼이 악어가 득실대는 강물에 뛰어듭니다. 위험이 따르더라도 강을 건너는 모험을 택할 때 풍요로운 초원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감히 도전하고 모험을 감수할 때, 지금 이곳에서 살아 숨 쉬는 연극,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연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대한민국연극제는 비록 ‘경연’이라는 형식으로 치렀지만, ‘놀이이자 잔치이자 축제’라는 연극 본연의 정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연극은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예술입니다. 입상 여부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번 무대를 또 다른 성장의 계기로 삼아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연극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고민하고 성찰하는 여러분과 함께, K-Theatre의 이름으로 세계에 우뚝 서는 한국연극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25일

제43회 대한민국연극제 본선 경연 심사위원단

이선형, 김도훈, 신현종, 이상희, 최원영, 차유경, Mc Ranin